

# ‘해외 입국자 확진’ ...보건당국 비상

### 가족·친구는 음성...동선 파악 등 역학조사 진행 입국자 신고 의무화...유럽·미국발 무증상도 격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네덜란드와 태국에서 각각 귀국한 20대 남성 2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20대 남성은 1차 검사 뒤 외국을 다녀온 것이 확인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친구 3명과 음식점, 카페, PC방 등을 다닌 것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태국여행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목포시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은 광주지역 백화점 명품 매장, 미용실, PC방 등지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동선 파악 등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29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목포 산정동에 거주하는 A씨(25)는 전남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강진의료원에 격리 치료 중이며 마른기침과 가래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6일부터 3월 25일까지 태국에 머물렀던 A씨는 지난 26일 오전 9시 25분께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후 인천공항 2터미널에서 버스를 이용해 유·스퀘어 터미널로 이동했다.

오후 3시 5분께 광주신세계 백화점 내 ‘구찌’ 매장을 둘러 쇼핑을 했으며 이후 친구 B씨의 차량을 이용해 오후 4시 20분께 북구 우산동 미용실 ‘비주얼 아우라’를 방문한 후 북구 문흥동 CU편의점 전 대명화점을 들렀다.

오후 8시 30분께 문흥2동 B씨의 집을 찾은 후 문흥동 소나무PC 클럽에서 다음 날인 27일 오전 0시 20분까지 게임을 즐겼다.

27일 오후 2시 23분 택시를 이용해 유

스퀘어 터미널에 도착, 오후 2시 45분께 목포행 고속버스에 탑승했다.

오후 3시 40분께 택시로 산정동 자택으로 이동한 뒤 4시 30분께 목포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채취를 실시했다.

보건당국은 A씨가 다녀간 관련 장소에 대해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A씨의 아버지, 여동생 등 가족과 식당, 카페, 마트 PC방 방문에 동행했던 친구 3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 모두 음성 판정을 내렸다.

A씨의 확진으로 목포에서는 지난 24일 노부부에 이어 3번째, 전남에서는 나주·순천·광양·여수·화순·무안 각각 1명

씩 6명 등 총 9번째이다.

해외 방문객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올 때 따라 전남도는 도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등을 의무화한 행정명령을 긴급 발동했다.

이날 긴급발표문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도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를 위해 27일 ‘해외입국자 특별관리 행정명령’을 발동해 3월 2일 이후 유럽,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해외 입국자의 자진신고와 진단 검사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이에 따라 도내 각 시군에서는 관내 전 주민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 행정명령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해외 유입으로 인한 2차, 3차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입국자 별도 격리시설을 운영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광주시도 지역 확진자 20명 중 10명이 해외 감염 유입 사례로 확인됨에 따라 해외 입국자 관리를 보다 강화한 특별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해외 입국자 중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으면 공항 검역소에서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광주에 도착하는 즉시 감염병전담 병원인 광주시립제2오양병원에 2주간 시설 격리 조치한다.

유럽·미국발 입국자는 증상이 없더라도 바로 생활치료센터에 격리하고 3일 이내에 검사를 시행해 음성일 경우 2주간 자가격리하도록 한다.

한편, 지난 26일 네덜란드에서 귀국한 광주 2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광주·전남 지역 환자는 29명(광주 20명·전남 9명)으로 늘었으며 이중 15명(광주 12명·전남 3명)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김용현 기자



운천저수지 통제 29일 오후 벚꽃이 만개한 광주시 서구 운천호수공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펼쳐지며 통제된 나무 산책로 입구에서 한 커플이 마스크를 벗고 멋진 포즈를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 북구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본부’ 출범

광주 북구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북구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본부’를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책본부는 최근 북구시가 구성한 ‘광주비상경제대책회의’에 발맞춰 중앙정부와 광주시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을 공유하고 구 자체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북구는 이달부터 23개 부서, 27개 동이 참여해 경제지원, 생계지원, 행정지원, 생활지원 등 4대 분야 8개 과제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경제위기 대응에 나선다.

먼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경영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광주시의 ‘3무(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특례대출’과 정부의 각종 금융지원 정책을 적극 홍보한다.

이와 함께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해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분위기를 확산하고 착한 임대료 참여 임대인에게는 7월분 재산세 최대 100만원 감면, 구 소유 시설 임대료 인하, 자치구 공공요금 동결 등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김종찬 기자

## 도교육청, 총선 후보자 교육 공약 제안

전남도교육청이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농어촌 섬 교육 발전특별법 제정과 마을 복합 교육문화시설 확충 등 지역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20대 공약을 제안했다.

2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10개 선거구 45명의 후보자에게 ‘전남 교육 분야 공약제안서’를 발송하고 총선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교육청이 제안한 공약은 ▲농산어촌 섬 학교교육 발전 특별법 제정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확충 ▲유치원의 ‘유아 학교’ 명칭 변경과 유아교육 국가책임 강화 ▲내 집 앞 유아 초등학교 돌봄센터 구축 등을 담았다.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마을 복합 교육문화시설 확충 ▲장의융합 교육 체험관 구축 ▲교사정원 배치 확대 ▲지자체와 함께하는 미래 교육 협력센터 구축 ▲지자체 농어촌 유학센터 설립 등도 포함했다.

도교육청은 이들 공약을 후보자들이 해당 선거구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조기철 기자

## 법원 운전면허증 위조 트럭 기사 ‘실형’

법원이 면허증을 위조해 대형 트럭을 운전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1부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7)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과 같이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로 징역 4개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일하며 2018년 11월 인터넷에 올라온 운전면허

증을 자신의 면허증인 것처럼 위조해 일하는 회사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4월 12일 오전 6시 30분께 전남 여수시 흥흥동 도로에서부터 경기 화성을 경유해 다음 날 오후 4시 13분 광양시 광양읍까지 약 600k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는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영민 기자

## ‘코로나 장기화’ 5·18 40주년 행사 논의

### 행사위원단장, 내달 7일 축소·연기 등 결정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행사가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축소·연기 등에 대해 논의된다.

29일 5·18기념재단과 제40주년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이하 행사위) 등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다음달 7일 행

사위 사무실에서 범국가적 재난 상황을 고려한 행사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5·18단체장, 상임 행사·집행위원장, 각 분야별 행사위원장 16명이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감안해 주요 행사 연기 또는 규모 축소 여부를 정한다.

이에 따라 5·18 전야제, 국민대회(대동의 오월), 민주기사의 날, 부활문화제, 청년마당 등 주요 행사들도 축소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기본 방향이 나오면, 전국 상임행사위원장 10명과 해당 안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 행사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행사위와 5·18기념재단은 코로나

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출범식도 온라인으로 가졌다.

국제연대 분야 주요 사업(광주아시아포럼 등) 일정도 5월에서 10월로 연기했다.

이철우 행사위원장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있다”며 “전야제 등 기존 행사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특성을 고려할 때 주요 행사 일부를 축소·취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 “아이들 좀 못 뛰게 해”

○··중간소음으로 위층 가정을 무단으로 침입한 60대 경찰서행.

○··2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60)는 전남 저녁 8시 30분께 서구 동천동 한 아파트에서 위층 아이들이 뛰어다닌다며 B씨(40·여)의 가정을 무단으로 들어간 것.

○··A씨는 경찰에서 “주말에 쉬려 하는데 위층 아이들이 뛰어다녀 전 등이 흔들렸다”며 “흔들린 상태에서 항의하려다 보니 나도 모르게 집안으로 들어간 것 같다”고 선처를 호소.

/김종찬 기자

## 상가 매매 상무지구

**① 치평동 중심유통상가 6층 [80평]**  
(유형주점, 카페, 노래방 적합)

- 즉시입주가, 시설비없음
- 콜롬버스영화관 바로 앞
- 감정가시세 5억원
- 매매가 2억5천만원

**② 치평동 중심유통상가 7층 [60평]**  
(유형주점, 카페, 노래방적합)

- 즉시입주가, 시설비없음
- 콜롬버스영화관 바로 앞
- 감정가시세 3억원
- 매매가 1억2천만원

**① 광산구 첨단 쌍암동상가 10층 [24] 평**  
- 매매가 7천8백만원(임대완료-보300, 월44만원)

**② 용봉동 원룸 매매 [룸15개, 주택1]**  
- 매매가 6억9천만원

**③ 장성토지 매매 1080평**  
(1,080평 6억원, 분할300평 2억)

## 장성토지 [급매]

### 광주에서 20분

(장성군청~장성댐사이)  
장성호 개발예정  
⇒ 국도도로 12m접(앞면30m)

- 1,000평 매매시세 10억  
↳ 급매가 6억 (용자 3억 가능)
- 300평분할가능 → 급매가 2억원, (용자1억가능)

(전원주택, 물류창고, 사무실 투자적합)

---

■ 토지 물건 추천

① 장성읍 용강리 국도변접합(760평) → 매매가 8천5백만	⑤ 장성 장성읍 덕진리(1,243평) → 1억6천1백만원
② 장성 아은리(코너) 664평 → 3억5천만원	⑥ 장성남면월정리(1093평) → 매매가 6억5천만
③ 장성 아은리(식당) 182평 → 5억5천만원	⑦ 담양읍메타세퀘아도로점(1470평) → 매매가 8억2천만
④ 장성 아은리(답) 379평 → 1억1천3백	⑧ 광주서구서창(197평) 시청에서 20분거리 → 매매가 5억9천만

## 경매교육 [기초반·특수반]

- ① 기초 실전반 모집**  
(무료강의 병행) ① 기초이론 + 실전
- ② 중급 실전반**  
① 중급이론 + 실전
- ③ 고급 특수반 모집**
- ④ 전문반 모집**  
· 책상, 컴퓨터 제공  
· 주1회 물건분석 스테디

이제 경매만이 큰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 10억짜리 부동산 → 3억에 가능**

**경매투자 연30%수익가능**  
· 근저당 설정시 연20% 가능

■ 추천물건

- ① 장성 남면 녹진리 4,620평 → 매매26억원
- ② 광산구 도산동 2층 구분건물 건물63.5평 → 2억5천7백만원
- ③ 서구 양동 주택 29평(건물) → 4천6백4십만원

010-4667-9820  
062-382-5500

010-6670-9800